

教授·學生的人間關係

金 在 恩

(梨花女大 教育心理學科 教授)

I. 머리말

大學이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위대한 制度의 하나로서 뚜렷한 지위를 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은 國民生活의 지도에 있어서 그 중심적인 役割을 해 가고 있다고 하겠다. 研究와 調査에 의해서 知識을 開發하는 목적을 가진 기관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에로 지식·문화를 繼承함에 있어서, 대학은 必要不可缺한 役割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近代社會의 여러 문제의 해결에 知識을 活用함에 있어서는 대학의 重要性은 더욱 增大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 한 예를 들면, 최근(1983年)에 美國 MIT 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遺傳工學研究所를 짓고 있는데 그 遺傳工學研究所가 MIT의 生物學科에 소속된 것이라 한다. 이 연구소는 1억불의 寄附를 받아서 짓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학 밖에 社團法人體로 하나 지을 수도 있으나 왜 하필이면 대학내에 이런 기관을 짓느냐 하면 대학 안에 가장 人的 資源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이 遺傳工學의 課題는 현대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에너지 문제를 비롯하여 식량증산, 질병예방과 치료, 식품의 제조와

보존, 식품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면에 걸쳐서 중요한 공헌을 하여 은 새로운 研究分野인 것이다. 이것은 대학이 社會의 發展에 기여하고 社會的 問題의 解決에 기여하는, 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다.

大學은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그 사회와 인류의 福祉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장 創造的인 課業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 教授와 學生은 共同의 目標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은 이 知的·文化的 共同體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새로운 知識을 創造해 내고 그 知識을 國民들의 生活의 向上을 위해서 陶冶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知識의 獲得·傳述·活用이라는 세 가지 機能은 서로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고, 교수와 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 일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능을 理解하지 않고는 대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는 研究·調査를 하며, 지식의 전달은 教授(teaching)를 통해서 하며, 지식의 활용은 대학의 社會奉仕의 사명과 同一視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機能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은 共同의 理想, 共同의 目標, 共同의 希望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그 役割에 있어서 分化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 대학은 知的 課業에 있어서 모든 성원이 共同的 價値를 향해서 살고 있는 共同體라고 할 수가 있다.

II. 知的 共同體의 機能障礙와 機能恢復

오늘날 우리 나라의 大學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앞에서 지적한 知的共同體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機能障礙가 왜 생겼는지를 들어 보기로 한다.

첫째는 대학의 量的 膨脹과 그에 따른 不實化의 障礙를 우선 들 수 있다. 이것을 교수·학생의 關係 次元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양적 팽창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2, 3년 사이에 캠퍼스마다 약 2배에 달하는 學生數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教授 要員의 수는 학생수 증가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는 상대적으로 학생의 質의 低下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교수요원의 질도 저하시켰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안에서는 교수수와 학생수의 相對的 比率는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이 만날 시간이 모자라서 일반적 傾向으로는 학생들의 疎外問題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教授의 질의 저하는 大學院의 量産體制와 관련하여 大學院教育의 質向上 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나, 그 문제는 일단 덮어두기로 하고 教授—學生間의 비율문제는 교육의 질의 문제와 함께 학생들의 대학생활 不適應의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겠다.

두번째 障礙는 入學試驗制度, 卒業定員制 등의 制度上的 문제로 인해서 초래된 대학생들의 心理學的 定着 失敗이다. 주지의 사실이긴 하지만, 대학에 지망하는 학생들의 志望傾向과 動機의 不透明, 不適應置(misplacement), 눈치合格 등의 適性無視의 傾向은 대학에서의 교수 학생간의 共同意識構築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거기에 첨가해서 거의 모든 대학이 編入學과 轉科를 不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성에 의한 專攻 選擇과 自己實現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고 있

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 나라의 制度나 대학의 學則이 軟性이라기보다는 硬性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原狀回復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制度가 돕는 것이 아니라 制度가 막는 것」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교수·학생간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兩者의 관계는 人間的인 關係이기보다 事務的이고 制度的인 關係로 變質되어 가고 있다.

세번째 障礙는 대학의 慢性的인 集團行動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만성적인 집단행동은 대학의 知的 雰圍氣에 損傷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은 교수와 학생간의 關係變化를 부채질하는 가장 심각한 要素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다. 집단행동의 빈발로 인해서 講義는 자주 중단되며, 學生指導에 대한 교수들의 어려운 입장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苦衷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빅타이를 잡히고, 막대기로 얻어 맞고, 욕설을 듣고 그것도 市井 雜輩들이나 쓸 비속한 언어로 욕설을 듣고 일반 사회인처럼 고발할 수 없는 理念的·現實的 苦衷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事態는 대학이 知的 共同體로서 교수·학생이 일치해서 공동 목표로 邁進해야 함에도 그런 前進에의 行路를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 障礙는 조속히 除去되어야 하며, 知的 분위기의 定着이 시급하다 하겠다.

네번째 障礙는 대학내의 空間構造에서 비롯되는 문제에서 초래된다. 즉 학생의 증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施設의 不足과 未備가 초래된다. 이것은 단순히 教育上的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내의 학생들의 行動問題에도 당장에 영향을 끼친다. 우선 多人數講座的 수적 증가는 대학생들의 教育不信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접촉의 기회를 제한하여 더욱 疎外시키며, 개인의 無名性을 심각하게 해준다. 학생관의 협소, 식당 좌석의 부족, 도서관의 시설과 좌석 부족, 강의실 출입구에서의 혼잡, 운동장에서의 혼잡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교수에 대한 不信感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어디 가든지 부딪치는 몸과 입김은 학생과 학생 사이도 협조자나 동료로 생각하기보다 경쟁자나 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학을 市場化하는 逆機能을 빨리 치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몇 가지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이 知的 共同體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短期的 解決方案과 長期的 解決方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장기적 처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조속한 시일내에 학생증원에 따른 教授 要員의 確保를 達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실정으로는 1명의 교수가 100명이 넘는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많은 학생을 지도하기가 벅차다는 단순한 핑계가 아니다, 교수가 研究에 열중할수록 學生指導는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까운 입고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時間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講義準備에 충실할수록 학생지도를 위한 시간 할애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학생 비율을 조속히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대학의 施設擴充을 促求하는 바이다.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밤 10시 넘어서까지는 침착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空間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수와 학생이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圖書館뿐 아니라 각 學科마다의 共同研究室은 하나 정도씩 마련되어야 교수가 학생을 쉽게 만날 수가 있다.

세째는 不合理하다고 생각되는 制度는 研究해서 하루라도 빨리 改善하거나 廢止해야 한다. 「制度가 돕는다」는 觀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行政官僚의 傳統的인 行態는 돕는 기능보다는 牽制하는 機能이 더 앞섰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學則도 마찬가지다. 제도가 促進的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觀念을 바꾸어 가야 되겠고, 또 실제적으로 제도도 고쳐 가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制度變更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다.

네째는 長期的인 戰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선 大學教育의 自律性 獲得을 위한 노

력을 들 수 있겠다. 이 自律性을 통해서 교수·학생 관계를 더욱 人間化해야 한다. 他律을 自招하게 된 대학측의 責任을 痛感하고 대학이 명실공히 知性的의 本山이 될 수 있어야 대학이 지적 공동체로서의 구실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人材들을 輩出해야 하며, 產學協同體制를 強化해서 대학이 사회의 요청과 괴리되지 않도록 해야 교수·학생 관계는 教育的 關係로 回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教授·學生關係의 病理

유럽에서 大學制度가 발달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사실은 그 傳統이 유럽에 아직 남아 있지만) 교수와 학생 관계는 徒弟關係였다. 전원 寄宿學校에 入學함으로써 학생들은 24시간 학교내에 있는 셈이고 교수와 1대 1의 兩者關係(dyadic-relation) 속에서 가르치고 배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교수는 學問的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고 人格的인 영향이나 感化를 동시에 주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대학제도가 普遍教育의 일환이 되면서 大量生產體制가 되고 따라서 자연히 교수·학생 관계는 事務的 關係로 변질하게 되었다. 지금은 동년배 靑少年 5명 중 1명이 대학생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選別된 엘리트는 이미 아닌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사무적 관계는 교수와 학생 쌍방에 모두 커다란 教育病理的인 問題를 야기시켰다.

첫째는 교수들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교수의 학생에 대한 生活指導에 학생들이 일종의 抵抗感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다. 교수의 학생지도는 원리적으로는 學問研究와 教授의 過程에 부수되는 과정임에도, 새삼스럽게 생활지도를 하려 한다는 데 대해서 학생들은 심지어 私生活侵害라는 名分까지 들고 나와서 교수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례까지 있다.

둘째는 학생들이 교수들에 대한 敬遠感이 높을 뿐더러,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不信度가 점

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교육적 문제이다. 학생들은 언제나 교수와의 對話不在를 불평하고 비판하며, 교수들은 학생들의 不條理的 態度와 행동에 심한 不信感을 갖고 있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관계라기보다는 서먹서먹하고 어색하며, 부자유스러운 관계가 되고 있다. 교수는 評價者이고 裁判者일 뿐이고 教育者가 아니라는 생각을 학생들은 가지고 있다. 학생이란 人間을 따기 위해서 온 사람이진 진정한 의미의 학문을 하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정당한 偏見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認識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학생의 集團行動이 교수·학생관계를 回復不能의 斷絶狀態로 몰아 넣고 있다. 교수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교수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幻滅의 情을 더욱 깊게 해 주며, 때로는 교수들로 하여금 敎壇에 대한 非情을 切感하게 해 주고 있다.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대학은 점점 더 「非情의 都市」로 변모하고 있으며, 살벌해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네째로 학생들 중 정신적인 苦悶과 私的인 문제, 進路, 性格 등의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學問上的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교수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은 우리에게 더욱 警愼心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왜 학생들은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수를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도 바쁘다고 푸념하니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단 大學社會단의 문제가 아니라, 産業社會가 몰고 온 하나의 전반적인 病理現象인 疎外現象이고, 連帶意識의 喪失 또는 自我喪失 등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더라도 대학은 그런 병리현상을 치유할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근래

에 某大學에서 학생이 교수를 殺害한 사건 등은 바로 이런 병리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그런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초래되는 충격을 緩衝해 주는 구실을 수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맺는 말

위에서 고찰한 바 있는 교수·학생관계의 諸問題에 대한 解決方案에 대해서 假說的이긴 하지만 몇 가지 提案을 해 보려고 한다.

1. 學生과의 만남에 교수들의 좀더 積極적이고 能動的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학생이 많을수록, 그들이 교수를 피하면 피할수록 교수는 그들에게 接近해 가는 努力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우리 教育力의 영향하에 두어야 한다.
2.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信賴度를 높이기 위해서 교수의 敎授·研究能力의 向上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課題物에 대한 성의 있는 添削指導를 하고 충실한 講義準備를 하고, 試驗結果를 공정하게 評價해서 피드백해 주며 研究프로젝트에 학생들의 助言을 받으며, 또 共同研究의 機會를 부여하며, 경우에 따라서 보다 私的인 기회에 학생 개개인에 대한 關心을 표명함으로써 교수·학생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학생지도를 위한 大學當局의 보다 融通性 있고 實質的인 프로그램 開發이 必要하다. 學生指導研究所나 學生處가 감독의 기능뿐만 아니라 援助의 기능을 발휘해서 학생들의 欲求不滿의 해결에 힘써야 한다.
4. 학생지도를 위한 指導費의 引上과 行政的 支援을 원할하게 해 주어야 한다. *